

‘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(안)’ 발표

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,
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
2018. 4. 10.

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·울곡로 자리에 새로운 역사광장이 조성되고,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(月臺)*가 복원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최근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광화문 앞 월대 등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태상의 원위치 이전, 역사광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‘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(안)’을 발표하고,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광화문 앞 역사광장(4만 4,700m²) 신규 조성 및 역사성 회복을,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확장 개선(2만 4,600m²)을 각각 주도한다.

아울러 10차로인 세종대로와 사직·울곡로 일부 구간이 6차로로 축소될 계획이다. 이는 차도를 줄여 보행로, 자전거도로, 대중교통 이용공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**’의 도로공간 재편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.

시와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설계공모를 통해 계획(안)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후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.



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배치도

자료: 서울시(2018), “서울시-문화재청,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하고 3.7배로 확장”, 4월 10일자 보도자료.



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조감도

- * 궁전 건물 앞에 놓는 방형의 넓은 단
- **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마련된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에 의거하여,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, 한양도성 내부(16.7km²)가 2017년 3월 최초로 지정되었음